



봉준호 감독(왼쪽 세 번째)과 배우 송강호(왼쪽부터), 박소담, 이정은, 최우식, 이선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슈리안 오티토리엄에서 열린 제26회 미국영화배우조합(SAG) 어워즈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상에 해당하는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인 모션픽처' 부문에 수상한 뒤 상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래픽 어워드 참석한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 2월은 K무비·K팝의 달... 오스카상 도전·BTS 신보 발매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할리우드의 높은 벽을 뚫고 오스카상을 품에 안을까. '기록소년단'이라 불리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새 앨범으로 이번에는 또 어떤 기록을 세울까. 2월에는 K무비와 K팝 위상을 높일 빅 이벤트가 열린다.

◇ '기생충', 한국 영화 최초 수석어 페레이드  
먼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무대는 다음달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다.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각본·편집·미술·국제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부터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등 '한국 영화 최초' 수석

어를 달고 수상 페레이드를 이어온 '기생충'이 오스카 트로피도 들어 올릴지 주목된다. '기생충'이 오스카 수상에 성공하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모두 휩쓸게 된다. 그동안 '기생충'은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 수상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근에는 최고 상인 작품상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높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미국배우조합(SAG)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최고 영예인 '양상불상'을 받으면서다. 외신에 따르면 오스카상 투표권이 있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AMPAS) 전체 회원 8,469명 가운데 배우는 1,324명(15%)에 달하며 이들은 곧 배우조합 회원이기도 하다. 2015년 '버드맨'과 2016년 '스포트라이트'도 배우조

합 최고상을 받은 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가져갔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할리우드 주요 매체들도 오스카상 예측에서 '기생충'과 '1917'을 새 선두주자로 꼽기 시작했다.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은 전미 영화제작자조합(PGA)으로부터 작품상을 받았다.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으면 한국 영화 최초 기록일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역사도 새로 쓰게 된다. 92년 아카데미상 역사상 비영어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울러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 6개 부문 후보 '기생충', 아카데미 새 역사 관심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발매... 또 어떤 기록 세울까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것도 1995년 텔버트 맨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마티'(1955년 황금종려상, 1956년 아카데미 작품상) 이후 처음이다. 봉 감독이 만약 감독상을 받으면 아시아계 감독으로는 두 번째다. 다만 출신 리안 감독은 할리우드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로 두 차례 수상했다. ◇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발매... 이번 엔 어디까지 갈까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1일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을 전 세계에 공개한다. 이번에는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방탄소년단은 세계적 거대 팬덤 '아미'에 힘입어 각종 국내외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전 미니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미국에서 6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됐다.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K팝 그룹 최고 기록인 8위까지 올랐다. 새로 선보일 '맵 오브 더 솔 : 7'은 2018년 5월 발매된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轉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이후 오랜만의 정규 앨범인 만큼 방탄소년단 음악 이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합뉴스

세계적 주목도도 높다. 롤링스톤과 빌보드 등 음악 매체들은 올해 주목되는 신보 리스트에 어김없이 방탄소년단 새 앨범을 포함했다. 방탄소년단은 '맵 오브 더 솔 : 7' 앨범에서 수록곡 '블랙 스완'을 한 달여 전 미리 공개하는 방식을 새롭게 택했다. 선공개 곡으로 관심을 높인 뒤 타이틀곡을 비롯한 본 앨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발매된 '블랙 스완'은 선공개 곡임에도 100개 가까운 국가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오르며 K팝 사상 최대 국가 1위 기록을 세웠다. 신보 발매 이후에는 4월부터 새로운 스타디움 규모 월드투어에 들어가 전 세계 팬들을 만난다. 현재까지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지에서 17개 도시 37회 공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 뮤지컬 데뷔 10주년 김준수, 내달 1일 팬들과 기념식

####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다”

“뮤지컬은 행복이자 한 줄기 빛이었다.” 뮤지컬 데뷔 10주년을 맞은 김준수가 첫 무대를 떠올리며 SNS에 남긴 소감이다. 2010년 1월 26일 뮤지컬 '모차르트!'로 데뷔한 김준수는 지난 10년간 8개 작품, 4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베테랑 배우로 거듭났다. 김준수는 첫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3,000석 규모 세종문화회관 전 회차 매진이란 기록을 끌어냈고,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와 제16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남우신인상을 받으며 신예 뮤지컬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그의 성공적인 데뷔는 이후 많은 아이돌 스타의 뮤지컬 진출을 유도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그 뒤로 '천국의 눈물', '엘리자벳',

'디셈버', '드라큘라', '데스노트', '도리안 그레이', '엑스칼리버'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자신만의 매력으로 완성하며 뮤지컬 관객 지면 확대를 이끌었다. 티켓 파워와 안정된 연기력을 인정받았음은 물론이다. 특히 티켓 파워는 단연 최고다. 그의 출연작은 티켓 오피스마다 최단 시간 매진을 기록해왔다. 초연, 재연, 공연 시기, 공연장 위치, 뮤지컬 시장 침체기 등과 관계없이 꾸준한 판매량과 흥행성을 보여왔다. 그의 뛰어난 작품 해석 능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김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긴 데뷔 10주년 소감에서 “세상이란 곳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지고 속상한 것들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받는 상처도 '이젠 괜찮을 거야'라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조금은 더 성숙한 어른이 돼 가고 있을 때 팬분들, 관객분들을 긴 기다림 속에 이어준 건 뮤지컬 '모차르트!'를 만난 계기였다"고 썼다. 김준수는 다음 달 1일 오후 5시 세종대 대강홀에서 '프레젠티'(PRESENT)라는 이름으로 팬들과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11일부터는 샤프트 씨어터에서 뮤지컬 '드라큘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방시혁, 미국 빌보드 '파워 리스트' 선정

방탄소년단을 배출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미 빌보드가 선정한 '2020 빌보드 파워 리스트'에 포함됐다. 빌보드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한 '2020 빌보드 파워 리스트'를 발표했다.

#### 매니지먼트 부문에 이름 올려 방탄소년단 사업 다각화 호평

경영, 공연기획, 스트리밍, 매니지먼트, 유통사 등 음악산업 분야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했는데 방 대표는 매니지먼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글로벌 성장을 지속해 빌보드 이후 '빌보드 200' 차트에서 1년간 세 번의 1위를 차지한 최초의 그룹이 됐다"고 언급한 뒤 방



대표가 이끄는 빅히트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사업을 다각화했다고 평가했다. 빌보드는 빅히트가 "방탄소년단 이후 첫 신인 그룹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선보여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까지 오르게 했고, 차트 상위권 걸그룹 여자친구의 레이블 쏘스뮤직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모바일 게임 'BTS 월드'까지 론칭하며 2019년 상반기에만 총 1억 7,200만 달러(2천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빌보드는 지난 10년간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경영자(Executive of the Decade)로 유니버설 뮤직 그룹 최고경영자(CEO) 루시안 그레이저를 선정했다. 소니 뮤직 롱 스트링어 회장, 스포티파이 다니엘 에크 대표 등도 '파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28일 (음력 1월 4일)

 <p>48년생 계약이 성사되는 길이다. 60년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72년생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다. 84년생 눈 뜨고 코 베인다.</p>	 <p>49년생 지름길은 빠르지만 가파른 법이다. 61년생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73년생 최종 결과는 그저 그렇다. 85년생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p>	 <p>50년생 집안이 화목해야 일도 잘 된다. 62년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74년생 맑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86년생 행운이 함께하는 날이다.</p>	 <p>51년생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린다. 63년생 인정에 이끌려 대의를 망치지 말라. 75년생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87년생 직장상사와 다투지 말라.</p>
 <p>52년생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64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는 성공의 비결이다. 76년생 행운이 가득한 멋진 날이다. 88년생 윗사람의 후원을 받는다.</p>	 <p>4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53년생 춤추고 노래하니 인생이 즐겁다. 65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있겠다. 77년생 일단 시작하면 그럭저럭 된다.</p>	 <p>42년생 마지막까지 믿을 것은 핏줄뿐이다. 54년생 꺼진 불도 다시 보자. 66년생 막히면 돌아오고 힘들면 쉬어가라. 78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p>	 <p>43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55년생 역시 피는 못 속인다. 67년생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79년생 천하에 명성을 떨친다.</p>
 <p>44년생 마음만 바쁘고 일의 진척이 없다. 56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68년생 체면 구걸 일이 있다. 80년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p>	 <p>45년생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57년생 명분 없는 싸움은 금물이다. 69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81년생 준비된 자는 좋은 기회를 얻는다.</p>	 <p>46년생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길하다. 58년생 운세가 점점 좋아진다. 70년생 성공의 열쇠는 역시 노력이다. 82년생 집착은 주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한다.</p>	 <p>47년생 근심이 해소된다. 59년생 맑은 해와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71년생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83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p>